

# 김병준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 계파갈등·낮은 지지율·인재양성·보수재정립 등 문제 산적

### “분명히 당의 많은 분야 아주 많이 바꿀 것” 전권형 비대위 밝혀

자유한국당은 18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이끌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확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내 산적해 있는 계파갈등 지지율 반등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17곳 중 2곳(경북/대구)을 제외한 곳에서 모두 패했다. 광역 외에 기초단체장은 전국적으로 참패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약속대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겸직했으나 그간 혁신비대위 체제를 놓고 비대위 권한과 활동기한 그리고 위원장 후보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등 잡음

이 계속됐다. 현재 한국당이 처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친박/박당과 간 계파갈등 낮은 지지율 보수, 인재양성 보수재정립 등 당 안팎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4차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각 계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용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친박친이계로 시작된 당내 계파갈등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나타 내탕’으로 이어지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탄핵정국이 시작된 2016년부터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를 기록하며 정의당과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49%로 한국당의 5배에 가까운 정도다.(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체제가 한국당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18일 한국당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관리형 비대위’와 ‘전권형 비대위’를 선호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비슷했다. 초선모임 간사 이양수 의원은 “관리형과 전권형을 둔 표결에서” 광범하게 절반 정도가 나왔다”고 했다.

일각에선 과거 김희옥·인명진 비대위 체제를 틀어 이변에도 역시 관리형 비대위에 그쳐, 힘을 쓰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초반에는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대위에 대한 반발과 의구심이 생길거란 설 명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당의 많은 분야를 아주 많이 바꿀 것”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혁신이란 말이 어울린다”고 전권형 비대위로 이끌 것임을 밝혔다.

비대위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공천권’ 여부다. 김 원내대표는 비대위 무용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천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원장에 부여한다고 한 바 있다.

2020년 총선은 아직 먼 이야기지만, 총선 공천권을 쥐는 문제는 인적정산 방향 문제로 흘러 또 다른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정세 점검차 미국을 방문하는 정의당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5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여야 5당 원내대표 방미

### “한반도 비핵화·자동차 관세 해결”

44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협력 의지를 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번에 미국 지도자들과 만나 한미 안보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미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로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의 의회 지도자와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관세 문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번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기틀 속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초당적 외교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미 활동 기간에 더 이상 정쟁 없는 국회로서 31년 만에 낡은 헌법의 틀을 바꾸어내는 개헌 논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웃러 민생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진정한 협치와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상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하나되는 국익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불이 99도까지 끓지 않다가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원내대표들이 보다 많은 협의와 스킨십을

가져 여러 개혁 입법과 민생 개혁 등을 해내는 초석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온 국민이 바라는 사항”이라며 “초당적 요인을 통해 우리의 분명한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반드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첫날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북미회담이 잘 되리라 낙관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의 무역확장법에 따라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정당 정파를 초월해 함께 보조를 맞추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원구성이 원만하게 됐듯이 소정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10시30분께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이들은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협회 임원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테드 크루즈 하원 아태소위원장, 스티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을 만난 뒤 대사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문희상 의장, 국회 특별비 논리에

## “목표는 특별비 폐지 또는 제도개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특별비)와 관련해 “목표는 특별비 폐지,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개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대명천지에 감감한 돈, 삼짱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액수 외에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다른 국가기관과 논의 ▲여야간 운영소위

내 결론 등 제도개선 절차 27지도 제시했다.

문 의장은 “국가 총 특수활동비 중 100분의 1을 국회가 쓴다. 그러면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체 특별비 개선과 국회 특별비 개선 논의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가 집의에 “기본 방향은 폐지 내지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가 전체 특별비 중 100분의 1을 쓰는데 다른 기관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보야 한다). 우리만 덮어놓고 할 일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

### “사유화된 당대표 권한, 당원에 돌릴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한 표차의 컷오프란 아픔을 참아내고 다시 당이 필요한 곳에 의병처럼 전국을 뛰면서 달려온 송영길의 손을 잡아 달라”면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자세로 당의 대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129명의 국회의원 130여명의 지역위원회 의원들이 세두우 상임위원회를 구성 등 모든 당의 기구에 참여하여 역할을 부여받고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위원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중앙위원이 전화하면 밤늦게라도 받고 못 받을 때는 하루 안에 반드시 응답하여



항상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께서 정부의 사유화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적폐청산을 통해 제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유화된 당대표 권한을 중앙위원 여러분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려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 청년 등을 배려하여 우리당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권리당원들에 대한 문제, 당의 교육연수기능, 각종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등 문제는 예비경선 통과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송 의원을 남북방, 남북정책과 대북정책을 국내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Together**  
광산구